

IBK MAGAZINE

# WIN CLASS



IBK PRIVATE BANKING QUARTERLY MAGAZINE

2019. **SPRING**

VOL. 13

## 이토록 좋은 계절

모든 것이 시작하는 계절.  
푸릇푸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교실은 새 학기를 시작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진다.  
어디 그뿐이라.  
곳곳에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에 사람들의 마음이 일렁거린다.  
이토록 좋은 계절이건만  
경제만은 온통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긴장하고  
9.13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요동치고 있다.  
지금 금융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투자의 기회는 다시 올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땅 위에 씨를 뿌려야 한다.  
뿌린 씨가 싹을 틔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만큼 연구와 투자, 리스크 대비가 필요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끊임없이 질문들을 따라가다 보면  
수많은 물음표에 대한 궁금증이 풀릴 테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은가.  
합리적인 금융 계획을 세우고  
실현할 수 있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자.  
당신의 행복한 삶의 열매는  
이미 반은 맺힌 셈이다.

# Contents

2019. SPRING VOL. 13

- 02 **PROLOGUE**  
이토록 좋은 계절
  
- 04 **SPECIAL COLUMN 1**  
2019년 부동산의 3대 이슈  
대출규제, 세금, 그리고 넘치는 유동성
  
- 08 **SPECIAL COLUMN 2**  
전기차 vs 수소차 친환경차 패권 경쟁
  
- 12 **SPECIAL COLUMN 3**  
저성장 시대에는 배당을 꾸준히 주는  
주식에 관심을 가져라
  
- 16 **INVESTMENT**  
2분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 20 **WM CLASS**  
찾아가는 자산관리 클래스  
반월성곡지점 고객사 안산21세기병원
  
- 24 **WM CENTER**  
남동공단WM센터,  
한 조각 한 조각 최고의 가치를 만들다
  
- 28 **TRAVEL**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사랑과 낙관,  
슬로베니아
  
- 34 **PREVIEW**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Die Zauberflöte
  
- 38 **BRAND STORY**  
보석의 자존심
  
- 40 **ART GALLERY**  
클로드 모네,  
지베르니에서 탄생한 최고의 걸작
  
- 42 **IBK FUND**  
이달의 추천 펀드



발행일 2019년 3월 5일 발행처 IBK기업은행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82 기획·디자인·제작·인쇄 경성문화사 02-786-2999  
<WIN CLASS>는 프리미엄 경제·금융·문화 정보를 담은 <IBK MAGAZINE>의 별본입니다.

<WIN CLASS>의 외부 필자 원고는 IBK기업은행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실적배당형 상품이어서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Real Estate Policy

## 2019년 부동산의 3대 이슈 대출규제, 세금, 그리고 넘치는 유동성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도  
알아 두어야

연초부터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8, 9명이 집값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  
대출규제가 강력한 가운데, 세금부담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지지만 한다.  
정말 대한민국 집값은 40년간의  
대세 상승을 드디어 끝내는 것일까.  
2019년 부동산 시장의 바뀌는  
정책들과 함께 향후 집값 흐름을  
좌우할 3대 이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Words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진 투자컨설팅 대표



지난 2017년 그렇게 뜨거웠던 부동산 열풍이 싸늘하게 식고 있다. 2018년 여름까지도 일명 '용산·여의도 통합개발' 이슈에 오버슈팅(급등)이 나왔지만 이후 정부의 초강력 부동산 규제책인 '9·13대책' 이후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2019년 연초 주택시장의 화두는 거래가 급감한 '거래절벽'이다. 4월 말이 되면 작년 대비 크게 오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토지의 공시가격이 확정되고, 연말에는 지난해 통과된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에 따라 세금 부담도 커진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관리지표가 궤도에 오르면서 돈 빌리기는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2019년 부동산 시장은 최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변수도 존재하는데 바로 시중에 풀려 있는 1,100조 원이 넘는 '유동자금'이다. 여기에 올해 풀리는 토지보상금도 30조 원이 넘는데 이 돈들은 다시 부동산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다.

###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정책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정책 중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이다. 기존에는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비율 등이 나뉘는데,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 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되지만,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기본공제 200만 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도 적용된

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9억 원(시세 약 14억 원) 초과,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증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바뀐 증부세를 보면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이 0.5~2.7%로 확대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0.6~3.2%로 확대된다. 보유세(재산세+증부세) 부담 상한선도 조정되는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는 200%까지 늘어난다.

신혼부부에게 반가운 소식도 있다. 올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 해주기 때문이다. 이미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어도 올해 입주(소유권 이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이며(재혼 포함), 소득 기준은 외벌이 연 5,000만 원 이하/맞벌이 연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약시장은 100% 무주택자 위주로 움직인다.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민영주택 공급 시 추천제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한편, 올해부터는 사실상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한다. 다주택가가 위장이혼을 통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 첫 번째 이슈, 대출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거래절벽은 지속될 것

현재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서 나타나는 '거래절벽' 현상을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주위를 보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매수 욕구는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거래절벽이 '인위적'이라는 건데, 바로 대출이 봉쇄돼 자산가가 아니고는 서울 주택을 구매할 수 없는 울며 겨자 먹기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다.

현재 집값 대비 대출한도를 나타내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서울과 수도권 기준 무주택자 40%, 1주택자·다주택자 0%다. 대출규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의 지표인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은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데 이어 올 2월부터는 상호금융업, 4월은 보험업, 5월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





# Loan To

# Value ratio



용회사에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서울에서 8억 원 하는 아파트를 가정하면 1주택자는 대출이 불가능하고, 무주택자는 현금 5억 원은 있어야 매수할 수 있다. 웬만한 자산가가 아니고는 서울과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히, 이런 대출규제 이슈는 '잔금 대출'로 불똥이 튀고 있다. 올해 전국의 연간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38만2,000가구로 대거 늘어나는데 이들 입주 세대에서 잔금 대출이 막히는 세대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자발적 2주택자를 양성하거나, (세입자는) 임대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집주인의 돈줄이 막혀 원치 않는 '깡통전세'로 이야기가 커질 수 있다.

가령 새 아파트의 분양권에 당첨되어 이사를 한다고 가정하자. 전세 거주자는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해결할 것이고, 주택 보유자는 기존 주택을 팔거나 전세를 놓고 (이 돈으로) 잔금을 치른다. 그런데 지금 '거래절벽'에 매매는 멈춰 버렸고, 전세는 시세가 급락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잔금을 못 치러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지 못한다. 이들이 사금융권으로 들어가면 사회적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 두 번째 이슈, 본격화되는 세금부담

올해 부동산 이슈의 또 한 축인 '세금규제'는 시간이 갈수록 메가톤급 충격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부터 시작해 2020년, 2021년, 2022년으로 갈수록 세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 연초 먼저 꺼내든 카드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였다. 올 1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전국 표준 단독주택 22만 가구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9.13%, 서울은 17.5% 상승했다. 서울의 마포구, 용산구, 강남구 등은 30% 넘게 올랐다. 그리고 4월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정해지는데, 지난해 가격이 치솟은 서울 등 일부 지역은 급등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중부세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세율도 오르는 데다 중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인상됐고 2022년

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따라서 세 부담 상한이 전년 대비 150%를 넘지 않는 1주택자와 달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세금 증가폭은 엄청나다. 그나마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세 부담 상한선은 200%로 한정됐지만 3주택자 이상은 전년 대비 300%까지 오른다. 그렇다면 세금부담은 얼마나 될까. 먼저 단독주택부터 살펴보자. 우선 전체 단독주택의 98%에 달하는 중저가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보유세 부담의 증가 폭은 제한적이다. 가격으로 보면 시세 15억 원(공시가격 9억 원) 이상부터 세 부담이 본격화된다.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A 단독주택의 경우(1주택자) 공시가격이 지난

해 12억 2,000만 원에서 올해 23억 6,000만 원으로 약 93%나 급등했다. 이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339만 원에서 올해 509만 원으로 증가한다. (150% 상한 적용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다면 세 부담은 1,163만 원까지 올라간다) 다음 아파트로 가보자. 아파트 경우 구간 공시가격 현실화가 빠르게 진행돼 오는 4월 발표 때는 강남, 서초, 용산 등의 최근 1년 반 동안 폭등한 일부 아파트가 집중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일부 고가 주택에는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건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함께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가령 시가 43억 5,000만 원(공동주택공시가격 24억 800만 원) 정도인 압구정현대1차(196㎡) 아파트를 보면 앞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지난해 약 1,380만 원의 보유세(재산세+중부세)에서 △2019년 2,253만 원 △2020년 2,990만 원 △2021년 3,867만 원 △2022년에는 4,906만 원까지 치솟게 된다. 이걸 1주택을 가정한 것이고, 다주택자라면 더 무겁다. 정부는 2020년 정도를 기점으로 높아진 세금부담에

매물이 출회되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강력한 조세저항을 만날 수도 있다.

## 세 번째 이슈, 1,100조 원 유동자금과 토지보상금, 그리고 금리인하?

지난해 하반기까지는 일명 '금리인상 논쟁'이 뜨거웠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이 타당하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었다. 이런 논쟁이 갑자기 커진 건 미국과의 '금리역전' 문제 때문이었다. 미국은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는데, 우리는 붙잡고 있으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아, 국내에 있는 달러 자금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1월 말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연 2.25~2.5%이고, 한국은 연 1.75%로 금리역전이 발생한 상태인데, 우려했던 외국계자금 이탈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지금도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 자금이탈을 미리 막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거품도 제거할 수 있다는 '일석이조' 효과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사실이다. 현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지속해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가 가파르게 오른다면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한 매물이 쏟아져 집값 하락에 '썩기'를 박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반전이 나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꽤 오랜 기간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고 공식 선언했기 때문이다. "올해 '금리인하'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 한국은행도 여유를 갖게 됐다. 정말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한다면? 이러면 집값이 다시 들쭉날쭉할 수 있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있다. 올해도 1,100조 원이 넘는 단기 유동성이 아직 갈 곳을 찾고 있지 못하는데, 여기에 최대 35조 원의 토지보상금이 또 풀린다는 점이다. 과거 패턴을 보면 이 토지보상금은 대부분 다시 부동산으로 들어간다.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데, 유동성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에 치명적이다. 게다가 내년(2020년)에는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 자칫 하반기로 가면 일부 정치권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현재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은 집값 대세하락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풍부한 유동성'과 '금리인하' 변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WIN CLASS





## 전기차 vs 수소차

### 친환경차 패권 경쟁

전기자동차(EV)와 수소전기자동차(FCEV) 등 미래 친환경차 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글로벌 자동차업체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진영은 크게 전기차와 수소차로 양분되는 분위기다. 전기차 '모델3'을 앞세운 미국 테슬라모터스와 중국 내수 시장을 등에 업은 비야디가 전기차 진영의 대표 기업이다. 나라로 보면 중국이 세계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선 현대자동차와 도요타, 혼다 등이 수소차 양산 규모를 늘리며 또 다른 진영을 구축하고 있다.

Words 장창민 한국경제신문 산업부 차장  
Photographs 현대자동차



#### 친환경차 패권 전쟁

'테슬라 신드롬'의 주인공 '모델3'은 4,000만 원대로 가격이 비싸지 않은 데다 한 번 충전으로 350km 이상 달릴 수 있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비야디는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 등 다양한 라인업을 앞세워 시장을 선점해가고 있다. 두 회사의 전기차 시장 쟁탈전은 그야말로 '전쟁' 수준이다. 비야디는 지난해 24만7,800대의 전기차를 팔았다. 테슬라도 24만5,200대를 판매해 근소한 차이로 뒤따랐다. 여기에 미국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패러데이 퓨처가 1,000마력의 힘을 갖춘 콘셉트 슈퍼 전기차 'FFZERO1'을 공개하며 테슬라에 도전장을 냈다.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주행거리 확대 경쟁에 동참했다.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 EV'를 내놓은 데 이어 2020년 400km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를 양산한다는 목표다.

나라별로 따지면 중국의 '전기차 굴기'가 가장 매섭다. 중국은 전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58만 대다. 2위인 미국의 세배에 달했다. 대기오염 감소, 전기차산업 부흥 등을 위해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준 덕을 봤다. 한국과 일본 등에선 또 다른 진영이 구축되어 있다. 현대자동차는 2013년 세계 최초로 '투싼ix'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다. 한 번 충전에 400km 넘게 달릴 수 있는 차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차세대 수소차 넥쏘도 내놨다. 넥쏘는 5분 충전으로 한번에 609km를 달릴 수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나온 수소차 중 주행거리가 가장 길다. 경쟁 차종인 도요타 미라이(502km)와 혼다 클래리티(589km) 등은 아직 500km대에 머물고 있다. 넥쏘의 복합연비는 수소 1kg당 96.2km(17인치 타이어 기준)다. 5분 충전으로 채울 수 있는 최대 수소량은 6.33kg이다. 수소차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현대자동차에 이어 2014년 세계 두 번째 양산 수소차인 '미라이'를 출시한 도요타는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에 맞

배출가스가 없을 뿐 아니라 공기 정화 효과까지 있는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쏘'



- 01 — 소형 SUV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
- 02 — 코나 일렉트릭은 한 번 충전으로 406km를 달릴 수 있다.
- 03 — 미래지향적인 실내 공간의 코나 일렉트릭
- 04 — 넥쏘는 5분 충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항속거리 609km를 주행할 수 있다.



### 전기차-수소차 당분간 공존

부품의 70%가량이 겹치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전기차 진영 맹주인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수소차 사회는 오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반면 현대자동차 CEO들은 “궁극적으로 수소차가 전기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장단점은 분명하게 나뉜다. 전기차는 배터리만 없으면 돼 수소차보다 수천만 원 더 싸다. 상대적으로 충전 등 인프라도 어느 정도 구축됐다. 다만 전기를 채워 넣으려면 급속 충전기에서 20~30분, 가정에서 충전할 때(완속)는 4시간 이상 걸린다. 주행거리는 한 번 충전으로 보통 300~400km 중반대를 갈 수 있는 수준이다.

수소차는 충전시간이 5분 내외로 짧다. 한 번 충전으로 통상 500~600km 이상을 갈 수 있다. 별도 에너지 없이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궁극(窮極)의 친환경차’로도 불린다. 반면 생산비용이 많이 드는 게 문제다. 1kg에 1억 원이 넘는 백금을 전기 생산을 위한 촉매제로 대당 70g 안팎씩 써야 한다. 생산단가 자체가 훨씬 비싸다. 수소충전소 한 곳을 건설하는 데도 약 30

억 원이 필요해 인프라 구축도 쉽지 않은 편이다. 일각에선 한국의 전기차와 수소차는 충전 인프라 및 정부 지원 부족으로 경쟁력이 뒤처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차의 경우 국내 완성차 업계와 테슬라의 기술 격차가 1~2년 정도 벌어져 있다는 분석이다. 수소차도 한국이 먼저 만들고도 판매량에선 일본에 따라잡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이유로 전기차나 수소차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아파트나 공용주차장에 충전시설을 대폭 늘리고 보조금 확대는 물론 버스전용차로 주행 허용과 같은 강력한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이 전기차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수년 내 국내 자동차산업의 명운을 가를 미래차 개발과 관련해 수소차 개발과 함께 전기차 양산 확대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항구 선임연구위원과 윤자영 연구원은 ‘구미(歐美)의 미래차 주도권 확보 경쟁 가속화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현재의 글로벌 시장 상황과 한국의 배터리 경쟁력을 고려해 전기차 투자를 늦추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수소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며 “다만 전 세계 수소차 누적 판매량은 작년 말까지 1만 대에 불과하고 수요가 2030년에 전 세계 신차 판매량의 2%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전기차 시장은 상용화 10년만인 올해 하이브리드카 판매를 추월하며 급성장세를 유지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이유로 전기차 양산에 전략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전기동력·자율주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한국 자동차산업의 미래는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마다 시각의 차이는 분명 있다. 다만 당분간 전기차와 수소차는 공존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진단이다. 지금은 전기차와 수소차가 공존하는 과도기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기차는 소형·단거리에 강점이 있고, 수소차는 아직 충전소 건설 비용이 비싸 대형 버스나 택시 같은 차량부터 상용화되는 분위기다.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고 시장을 선점해나가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수소차 대중화에 대비하는 절묘한 전략을 짜야 할 때다. WIN CLASS



전기차와 수소차 비교		
순수 전기차(EV)	구분	수소연료전기차(FCEV)
전기 외부충전	연료	수소
전기→배터리충전→모터 가동	운행과정	수소→연료전지(발전)→배터리충전→모터 가동
없음	배기가스	없음
빠른 상용화 속도 다양해지는 차종	장점	짧은 충전시간·긴 주행거리 가장 친환경적 운행
비싼 가격 내연기관차 대비 인프라 부족 긴 충전시간·짧은 주행거리	단점	비싼 가격 전기차 대비 인프라 부족 높은 생산 단가



투자시장에 부는 새로운 바람,  
안전자산을 찾아라

## 저성장 시대에는 배당을 꾸준히 주는 주식에 관심을 가져라



# Stock Dividend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이자 글로벌  
초저성장 시대. 돈 불리기  
더욱 어려워지는 이 같은  
재테크 빙하기에도 발 빠른  
투자자들은 틈새를 파고든다.  
금융시장에 불고 있는 새로운  
안전자산 찾기 열풍과 새로운  
투자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배당주에 대해서 알아보자.

Words 김경필 경제교육컴퍼니 풀앤앤하우투 대표

### 저성장 시대에는 안전자산으로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진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기준금리 1%대라는 유례없는 초저금리 시대를 지나왔다. 이런 원인으로 자산시장에선 실물자산인 부동산이 단연 강세를 보여 왔다. 특히 수도권과 서울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쏠림 현상은 이전보다 더욱 심화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억제와 보유세 인상, 공급확대 등 다양한 억제정책과 그간 과도한 상승에 대한 시장의 경계심으로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냉각기에 접어들 전망이다.

지난 10년은 저성장이 고착화(固着化)되는 시작이라고 봐야 하는데 경제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런 지속적인 저성장 시대에는 안전자산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난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자산이란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성장가능성보다는 현금흐름의 불변성, 다시 말해 현금흐름이 확실하게 오래 지속되는 자산을 말한다. 따라서 투자금액에 비해 지금 당장의 수익률이 높은 자산보다는 현재 수익률은 높지 않더라도 앞으로 수익이 변하지 않고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자산에 돈이 끌려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에서는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이 공실 위험이 있는 것보다는 공실위험이 낮은 주

택, 그중에도 아파트로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되었던 것이다. 지방은 미분양이 속출하고 집값이 뒷걸음질 치는데 비해 서울의 아파트, 그중에서도 강남의 아파트만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임대수익률은 오히려 지방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강남의 아파트값의 폭등은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미래 현금흐름(월세나 전세)의 수익률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투자 금액보다 적은 월세라도 미래에 더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의 믿음 때문인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새로운 10년, 자산시장에는 어떤 바람이 불 것인가? 2008년 미국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경제도 초저성장 시대로 진입했다. 금리는 경제성장률을 보여 주는 지표인 만큼 이처럼 낮은 금리는 전 세계가 당분간 거스를 수 없는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반증이다. 그나마 미국이 금융위기 이전의 경제상태로 회복되면서 어느 정도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와 같은 4%를 넘는 확실한 성장세를 장담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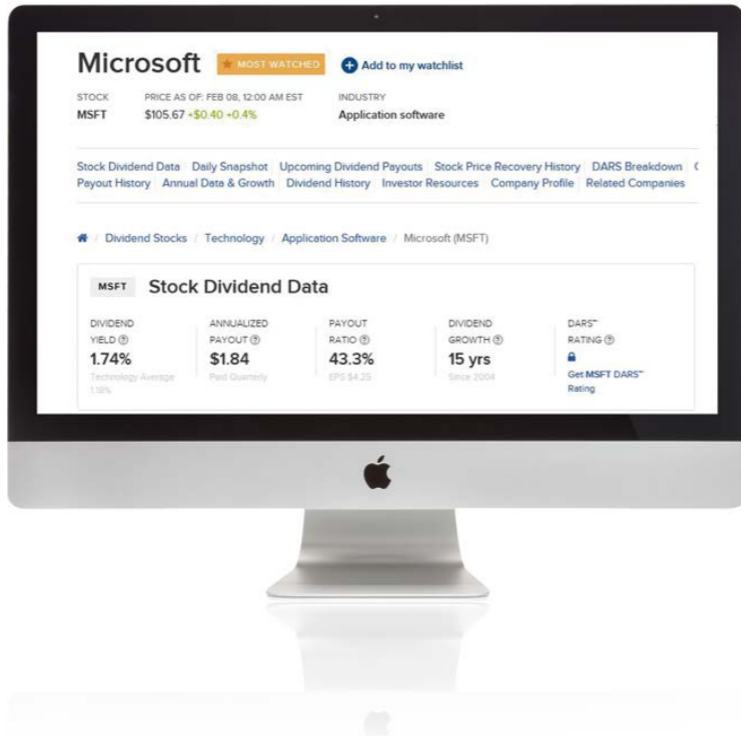
###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의 주식, 왜 안전자산이 될 수 있는가

배당성향이란 기업의 이익을 얼마나 높은 비율로 주주에게 환원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말이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2018년 기준 전체 이익의 21% 정도를 배당하는 것에 그쳤다. 미국 상장기업이 같은 시기에 이익의 43%를 배당한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국내 기업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배당성향을 보여 온 이유로는 높은 배당이 자칫 기업의 순자산 성장률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물론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고 미래에 투자재원으로 회사에 유보한다면 당장의 내재가치(intrinsic value)는 올라갈

주요국 기준금리							(자료: 국제통화기금 2019년 1월 기준)		
BOK 한국	FED 미국	ECB 유럽연합	BOE 영국	SNB 스웨덴	RBA 호주	BOC 중국	BOJ 일본		
1.75%	2.50%	0.00%	0.75%	-0.75%	1.50%	1.75%	-0.10%		



미국배당사이트 www.dividend.com (2019년 2월 기준)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와 같이 대규모의 투자자가 가능했던 기업 환경에서나 필요했던 방법이다. 지금과 같이 유보자산을 활용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저성장 시대에서는 오히려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의 주가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는 과거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으로 유명했다. 배당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유보자산을 늘려 시장에서 성장성 있는 기업을 인수하거나 신사업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적극적인 배당을 하는 기업으로 변모했다. 그 이후 기업의 이익증가율에 비해 주가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배당수익과 주가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셈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배당수익률이 1.73%, 1년에 평균 주당 1.84달러를 배당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체 수익의 43.3%를 환원하는 것으로 현재 15년째 매년 상승하는 배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전에 비해 배당을 획기적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양호한 성장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래의 수식은 재무학의 관점에서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기본개념을 설명해준다. 주가란 결국 미래에 기업의 주당이익가치를 현재의 요구수익률로 할인한 값이다.

**과정식** 
$$P_0 = \frac{EPS_1}{(1+Re)} + \frac{EPS_2}{(1+Re)^2} + \dots + \frac{EPS_n}{(1+Re)^n}$$

**결론식** 
$$\sum_{t=1}^{\infty} \frac{EPS_t}{(1+Re)^t}$$

**최종식** 
$$P_0 = \frac{EPS}{Re}$$
 → 증가할 경우 주가상승  
→ 감소할 경우 주가상승

$P_0$  : 현재의 주가(0은 현재시점을 의미한다)  
 $EPS_t$  : t기 말 주당순이익  
 $Re$  : 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수익률

주당이익가치란 주당순이익(EPS, Earning per share)을 말하는데 올해 예상되는 주당순이익, 또 다음 기간에 예상되는 주당순이익,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미래 주당순이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값이 현재 주가가 된다는 논리이다. 미래 발생할 주당순이익을 할인하는 이유는 미래에 이익은 미래가치이므로 현재가치에 비해 더 적게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1,000만 원의 가치와 1년 후 1,000만 원의 가치는 같을 수 없는 이치다. 이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익을 무한등비 수열식을 정리해 풀면 주가란 결국 주당순이익을 (1+요구수익률)로 나눈 값이 된다.(∴최종식) 따라서 분자인 주당순이익이 늘어나거나 분모인 요구수익률이 줄어들면 주가는 상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요구수익률이란 무엇일까. 이것은 투자자가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익에 대해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부담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투자자가 그 투자에 대해 요구하는 보상수준을 의미한다. 만일 투자자가 투자대상을 안전하다고 느낀다면 높은 보상수준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투자대상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되면 당장 높은 보상수준을 요구한다. 즉, 높은 요구수익률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기업이 성장하더라도 이익을 지금 당

저성장 시대에 기업의 배당이란 기업의 내재가치 증가를 억제해 미래 주가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아니라 낮은 요구수익률로 시장에서 웬만한 악재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주가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투자의 지표가 되는 것이다.

장 배당하지 않고 끝없이 미래로만 연기한다면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이 투자자 많은 리스크를 갖고 있다고 느껴서 당장 높은 보상수준을 요구하게 된다.(=요구수익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분자값인 주당순이익이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라도 분모값인 요구수익률도 그 이상으로 상승시켜서 주가상승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만다. 이런 주식은 시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매년 주당순이익 5,000원을 훌쩍 넘어서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1주에 50,000원을 넘지 않는 기업이 주식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은 5,000원 ÷ 50,000원으로 무려 10%나 되는 것이다. 주가가 시장에서 50,000원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 이 주식을 그 누구도 50,000원보다 비싼 가격에는 절대 사지 않으려 한다는 뜻이다. 지금 1년에 주당 5,000원이나 벌고 있는데 왜 투자자들은 그 주식을 50,000원보다 더 비싼 가격에는 사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5,000원이라는 현재의 주당순이익의 미래 안정성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업의 주가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수익이 늘어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배당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이 기업이 앞으로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요구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의 주가는 경기변동에 둔감하고 안정적이다**

하지만 반대로 이익을 꾸준히 배당한다면 어떻게. 당연히 요구수익률은 낮아진다. 예를 들어 현재 주가 대비 3%를 꾸준히 배당하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연 3%의 이자를 받는 것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투자자는 마치 채권을 소유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것이다. 이처럼 배당성향이 높고 꾸준한 배당을 실시하는 회사의 주식은 투자자들에게 채권처럼 인식되어 버린다. 채권이란 예금처럼 무위험 자산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요구수익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 요구수익률이 낮아지면 기대되는 수익에 비해서 분모 값이 낮아져 주가는 오르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런 배당성향이 높고 안정적인 주식은 장기 보유하는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데 장기 보유한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웬만한 주가 상승에도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는 때라도 집단적인 투매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경기에 민감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주가를 안정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저성장 시대에 기업의 배당이란 기업의 내재가치 증가를 억제해 미래 주가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아니라 낮은 요구수익률로 시장에서 웬만한 악재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주가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투자의 지표가 되는 것이다. WIN CLASS



## 2분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미국 등 글로벌 경제 성장이 약화되고, 중국 위안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식 등 위험자산보다는 채권 등 안전자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때다.

Words IBK투자증권 투자분석부



### 부진한 경기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1월 주식시장이 강하게 상승했으나 전반적인 2019년 주식시장에 대한 기존 전망은 유지한다. 즉 KOSPI의 박스권 움직임을 예상한다. 글로벌 경기 둔화 신호로 인해 시장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한다.

주요 지표를 본다면, OECD 경기선행지수, GDP 등 주요 지표는 이미 정점에 도달한 뒤 하락세이다. 과거 이러한 지표 흐름을 봤을 때 성장 둔화로 주식시장이 하락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 지표의 둔화가 뚜렷한데, 이는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며 주요국 중앙은행과 IMF, OECD와 같은 국제 경제 기구도 성장률 전망치를 연이어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 둔화는 기업 실적의 부진으로 연결됐다. 2017년 대비 2018년 영업이익은 소폭 증가했으며 올해 영업이익은 10%가량 감익할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역시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특히 반도체 업황에 따른 하향 조정이 크게 작용하면서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펀더멘털이 약해진 만큼 시장의 상승 동력도 약해져 리스크 요인이 부각될 때마다 흔들리는 것이다.

다만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지수 하단을 지지해주고 있다. 2018년 미국의 경제 호조를 바탕으로 꾸준히 금리를 인상한 연준이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을 고려해 완화적인 기조를 보이면서



신중국 자본 유출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완화적인 기조를 보였다는 의미는 그만큼 경기가 둔화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경기 둔화 국면이 이어지면서 상승 모멘텀의 부족으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된다. 따라서 방어적인 가운데 +α를 찾는 전략이 필요하다.

1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IT하드웨어, 유틸리티, 운송, 미디어/교육, 기계 등의 업종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KOSPI의 기업이익이 둔화되는 가운데 위 업종은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향되어 이익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다.

실적과 같은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언제든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신호가 나타날 때 다시 위험자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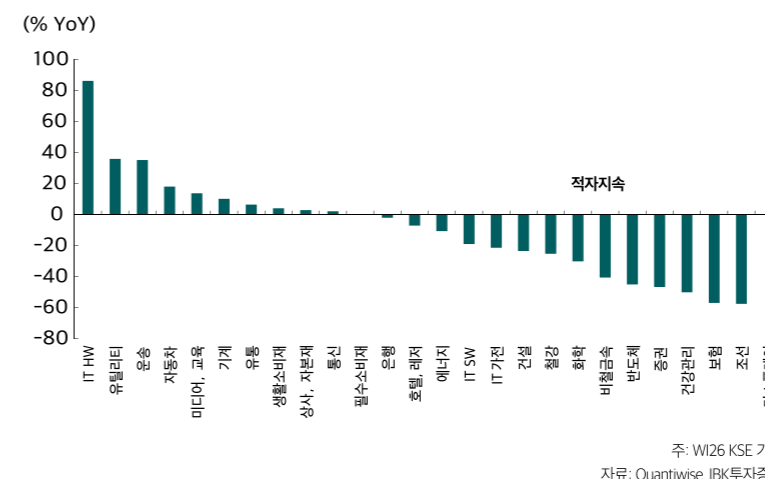
### 채권시장, 안전자산 선호와 레벨 부담 사이

연초 들어 위험자산 선호가 잠시 고개를 들었다. 대내외 펀더멘털 부진은 금융시장 가격에 대부분 반영됐다는 인식 속에 미국 연준의 긴축이 예상보다 느릴 것이라는 기대감과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출회됐기 때문이다. 지난 해 내내 금융시장을 떨게 만들었던 미중 무역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보인 것도 한몫했다. 이에 주식시장은 반등했고, 금리는 상승했다. 특히 국내 채권금리의 경우 연말을 지나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일정 부분 반영한 수준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 재료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2019년 연내 금리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1분기에는 금리가 소폭 상승할 수는 있으나, 2019년 연간 투자를 계획할 때는 장기투자기관의 경우 금리가 상승할 때마다 꾸준히 분할매수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1월 나타났던 위험자산 선호의 재료는 결국 경기 둔화의 동의어다. 미국 연준 관계자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더욱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결

<표1> 섹터별 2019년 1분기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에 주목





# China Economic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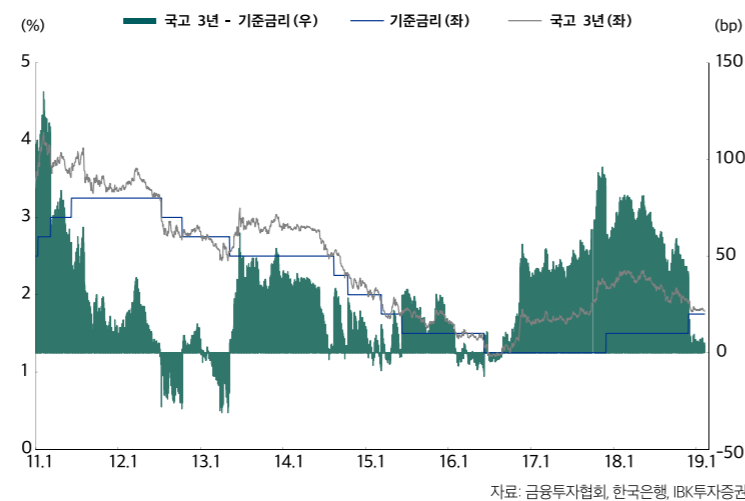


미국 경제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기 부양 역시 경제지표 둔화라는 배경이 있었다. 국내 금리 상승도 펀더멘털의 개선이 아니라 정책적 시그널과 펀더멘털 간 괴리로 인해 생겨난 레벨 부담의 산물이었다. 국내 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고 당분간 좋아질 일보다는 둔화될 일이 더 많을 것이다. 미국, 중국처럼 대규모 부양책을 쓸 수 없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제가 안 좋을 때 더 빠르게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결국 금리의 방향성은 위쪽보다 아래쪽이다.

2019년 들어 국고 3년 금리는 기준금리와 대략 5bp 내외의 차이를 보였다. 기준금리와 국고 3년 금리의 차이는 경험적으로 금융시장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기준금리 변경 기대감을 뜻했다. 과거 경험적으로 볼 때, 5bp 내외의 스프레드는 시장 참가자들의 70% 이상이 기준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뜻한다. 아직 한국은행에서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진 않았는데도 이 정도로 스프레드가 줄어든 배경에도 역시 경기 둔화가 깔려있다.

한국은행도 지난 1월 경제전망을 통해 향후 글로벌 경제의 어두운 면을 더욱 부각시킨 바 있다. 다만 아직 이어지고 있는 미국 긴축 사이클과 예정대로라면 하반기에 시행될 ECB의 기준금리 인상 등의 부담으로 인해 선불리 기준금리 사이클을 변경하지 못할 뿐이다. 연내 대내외 펀더멘털이 추가적으로 둔화되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막바지에 임박하는 시기에는 한국은행의 부담감도 줄어들 것이다. 우리는 그 시기를 2분기 중으로 보고 있으며, 2분기간의 국내 시중금리는 끊임 없는 안전자산 선호와 레벨 부담 사이에서 강보합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2> 기준금리와 국고 3년 금리 간 스프레드



## 중국 기회인가? 위기인가?

지난 1월 글로벌 위험자산의 상승을 견인했던 주요 재료는 미국 연준의 완화적인 입장과 미-중 무역협상 기대와 더불어 중국의 경기부양책이었다. 중국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펼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시장에도 보탬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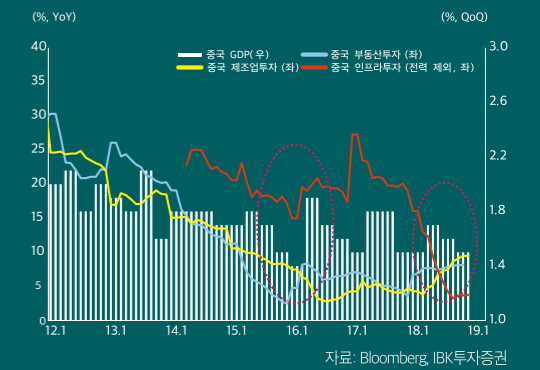
현재 중국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통화정책에 있어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인하했고, 재정정책에 있어 인프라투자 와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감세 등을 추진 중이다. 중국 당국의 경기부양책은 단기적으로 중국 경제성장률의 반등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초에도 중국 당국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가운데 내수 실물과 심리 지표가 즉각적으로 개선되면서 단기적으로 중국 경제성장률은 반등한 바 있다. 현재 미국과의 무역분쟁에 따른 악영향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중국이 2016년보다 더 다각화된 부양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올해 6% 성장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려되는 것은 금융시장이다. 특히 위안화를 중심으로 급격한 평가절하가 진행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놨다. 중국이 통화 완화정책을 펼치면서 정책금리를 인하하면 중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더 축소될 것이다. 이는 위안/달러 환율의 상승을 견인할 재료이다. 여기에 덧붙여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위안/달러 환율 상승 요인이다. 과거 환율전쟁은 대상이 된 국가의 화폐 가치 하락, 국부 상실, 경제 위기 등으로 확산됐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취약한 부분이 주목받고, 위안화가 빠르게 평가절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용 리스크가 부각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의 부채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IMF는 중국의 부채가 2017년 GDP 대비 256%에서 2022년에는 29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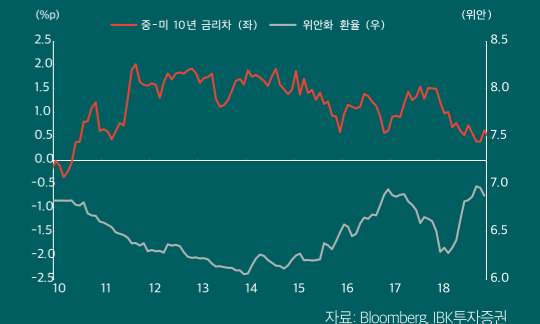
있다.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경기 둔화로 중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며 부실대출이 증가할 수 있고, 시진핑 정부가 부채와의 전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그림자금융도 문제다.

과거 환율전쟁의 대상국이 됐던 국가의 경제가 취약한 가운데 큰 이익을 누리기 위해 투기 세력이 해당 국가 시스템의 약점을 공격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바 있다. 그 때문에 올해 위안화의 역내와 역외 환율의 갭에 주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2016년 초 중국발 리스크가 확대됐을 때도 역내와 역외 위안화 환율의 차이가 확대된 바 있다. 위안화를 중심으로 한 중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겠지만 중국의 국가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이 3조 위안의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안전판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올해 중국의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더라도 경제 펀더멘털의 붕괴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중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당장은 위기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저가매수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WIN CLASS

<표3> 중국 경제성장률과 고정자산투자 항목별 증가율



<표4> 중국과 미국의 금리 차와 위안화 환율





**찾아가는 자산관리 클래스  
안산21세기병원**

**지금,  
당신의 자산은  
안녕하십니까?**

IBK기업은행은 자산관리 전문가가 직접 중소기업을 방문해 근로자들에게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자산관리 클래스'를 시행 중이다. 지난 2월 21일 안산21세기 병원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자산관리 클래스'는 자산관리에 대한 의료인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Words 박영화 Photographs 고인순



'찾아가는 자산관리 클래스'는 기존의 VIP 고객 위주로 제공되었던 양질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업무 중 은행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도 제공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IBK기업은행과 거래하는 기업고객이라면 거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찾아가는 자산관리 클래스?**

'금융 상담을 받고 싶어도 업무가 바빠서 은행에 갈 시간이 없다면?', '자산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직장인들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주기 위해 IBK기업은행은 지난 1월부터 자산관리 전문가가 직접 중소기업을 방문해 근로자들에게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경제 환경과 재테크 전략 등을 소개하는 금융 정보, 내 집 마련을 위한 방법 등의 부동산 정보, 마지막으로 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꿀팁 등을 알 수 있는 세무 정보다. 이렇게 세 분야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교육을 들을 수 있고, 별도의 주제를 요청할 때에는 추가로 정보를 받을 수도 있다.

'찾아가는 자산관리 클래스'는 기존의 VIP 고객 위주로 제공되었던 양질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업무 중 은행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도 제공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IBK기업은행과 거래하는 기업고객이라면 거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몰랐던 자산관리**

자산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설령 자산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평소 직원들에게 자산관리에 대해 배울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었던 김재현 병원장은 '찾아가는 자산관리 클래스'의 문을 두드렸다. 강의를 평생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가령 27세쯤 취업을 하고 30대 초반 결혼과 출산을 하게 된다면 30대 중반부터는 주택 마련을 위해, 40~50대에는 자녀 교육을 위해 돈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다. 문제는 55세 이후

은퇴자금이 없을 경우에는 자산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는 것.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소득 대체율이 39.3%에 불과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산관리를 해야 할까. 김형준 과장은 가정 형편, 소득 수준, 입사 시기가 비슷한 두 사람을 비교하며 자산관리 방법을 소비·지출 전략부터 보험 관리 전략, 저축 전략, 투자 전략으로 나눠 소개했다.

**알찬 재테크 정보**

강의는 투자 방법에 대한 소개로 이어졌다. 가장 먼저 소개한 투자 법칙은 '100-나이의 법칙'이다.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빼서 나온 값만큼은 투자 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전 자산에 배분하라는 것. 만약 당신이 70세라면 70%는 채권 같은 안전 자산에, 나머지 30%는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라는 의미다. 이외에도 복리를 전제로 자산이 두 배로 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한 '72법칙', 남의 돈을 빌려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레버리지 법칙' 등이 소개되었다. 주식·채권·펀드 투자의 장단점과 유의사항, 투기와 투자의 차이 등 한 시간 동안 진행된 강의는 평소 알 수 없었던 재테크 정보를 알차게 담아냈다. 박상미 간호사는 "자산관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씩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채영 임상병리사도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동료와 공유해야겠어요"라며 짧은 소감을 남겼다. 기획실 김진영 사원도 강의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처음 듣는 용어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제가 경제에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오늘 강의 내용이 유익했어요"





# 믿음이 있기에 소중한 인연을 이어갑니다

안산21세기병원 김재현 병원장



“각 분야의 전문 의료진이 최고의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흔한 소개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당신은 좋은 병원을 알게 될 기회를 놓치게 된다. 10년의 세월 동안 최고의 척추·관절 병원으로 성장하면서도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기본을 흔들림 없이 지켜온 안산21세기병원. 안산21세기병원의 성공 스토리에는 ‘서로 간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김재현 병원장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 척추·관절 치료의 리더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솝 우화가 있다. 어느 날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했는데, 느리지만 꾸준히 노력한 거북이가 빠르지만 피를 부린 토끼를 이긴다는 이야기다. 김재현 병원장은 안산21세기병원이 이솝 우화 속의 거북이와 같다고 말했다. “병원 이름이 21세기지만, 진료에 있어서는 고전적입니다. 새로운 의료 트렌드를 받아들이지만 ‘착한 진료와 정성스러운 서비스로 환자와 함께한다’는 마음은 꾸준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2009년 개원해 올해 10주년을 맞은 안산21세기병원. 10년의 세월 동안 안산21세기병원이 최고의 척추·관절 치료의 리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



었던 건 병원과 환자 간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두터운 신뢰는 의료진과 직원 사이에서도 형성되어 있었다. “오래 근무한 의료진과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서로 간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실력도 최고인 분들만 계십니다. 신경외과, 정형외과, 일반외과 등 6개 진료과 17명의 분야별 전문의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출신으로 척추·관절 치료에 경험이 많은 분야별 최고의 전문 의료진입니다.” 김재현 병원장은 반월성곡지점과도 서로 간의 믿음이 있었기에 시작된 인연이라고 말했다. “작년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주거래은행을 바꾸려고 많은 은행 직원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반월성곡지점 직원들은 다른 은행과 달리 진정으로 우리 병원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 만났는데도 편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인연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안산21세기병원과 기업은행 간에는 두터운 믿음이 생겼습니다. 반월성곡지점은 우리 병원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지금처럼 좋은 인연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가다

안산21세기병원은 환자 진료, 감염 관리, 수술 및 마취 진정 관리, 안전한 시설 및 환경 관리 등으로 구성된 300여 가지의 조사항목을 통과하여 안산에서는 유일하게 보건복지부로부터 척추·관절 분야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1:1로 전담하며 24시간 케어하는 등 최적화된 입원병동을 운영하고, 퇴원 후에도 분기별로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통해 수술 후 관리까지 세심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전문 치료사가 1:1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능형 척추 감압 치료기 등 최신식 장비를 갖춘 재활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수술실 전체가 완전 클린 무균수술실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완전 클린 무균수술실은 NASA 기준 공기 청정도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청결 구역으로 수술실 기구와 의료장비를 첨단 멸균 처리해 수술 후 2차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김재현 병원장은 안전한 수술



은 환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안산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거제도, 제주도 등 먼 곳에서 우리 병원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게다가 중국, 몽골, 러시아, 베트남 등에서도 많은 외국인이 선진화된 척추·관절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옵니다. 치료를 다 받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감사 편지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큰 힘을 얻곤 합니다.” 안산21세기병원은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료수술 지원, 봉사활동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무료로 다리 수술을 해주는 ‘희망의 발걸음’도 진행 중이다. 김재현 병원장은 10년의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척추·관절 치료의 리더로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옆도 뒤도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3년 전에 아마존으로 의료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봉사하면서 의료혜택을 받은 그분들보다 저희가 더 힐링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또 따뜻함을 받을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싶습니다.” 한국 소비자 만족 지수 8년 연속 1위 수상, 메디컬코리아대상 5년 연속 수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대한민국 100대 명의의 선정. 안산21세기병원이 끊임없는 노력으로 개원 10년 만에 이루어낸 빛나는 성과들이다. 또 한 번의 강산이 변하는 2029년, 안산21세기병원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더해져 있을까. 분명한 사실은 ‘착한 진료와 정성스러운 서비스로 환자와 함께 한다’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안산21세기병원은 대한민국 척추·관절 치료의 리더로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넓은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있을 것이다. WIN CLASS



# 한 조각 한 조각 최고의 가치를 만들다

인천  
남동공단WM센터

심민정 대리 <

이지현 대리 <

백중선 부센터장 ^

박은숙 센터장 <

> 김경선 과장

한 조각 한 조각이 서로 조화를 이뤄야 완성되는 퍼즐. 조직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을까. 동료와의 호흡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 바탕이 되니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최고의 센터로 만들자!'는 남동공단WM센터의 목표는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토록 완벽한 호흡을 보이는 센터는 없었으니까. 최고의 가치를 원한다면 바로 이곳, 남동공단WM센터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Words 박영화 Photographs 정우철



**인천 지역 최초의 복합점포**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에 들어서자 쉽 없이 돌아가는 공장 기계의 열기가 느껴진다. 식품, 섬유, 목재, 제지, 석유·화학, 비금속 등의 조립·금속업종뿐만 아니라 영상·음향, 정보·통신, 의료, 정밀, 전기·전자 등 첨단 벤처기업들이 터를 잡은 이곳은 우리나라 산업의 뿌리를 튼튼하게 지탱하고 있는 인천 최대 규모의 남동국가산업단지다. 남동공단 WM센터는 바로 이 중심에 위치해 있다. 남동공단WM센터 직원들은 인천 지역 최초의 복합점포라는 점 때문에 행복 하나하나가 관심을 받아 부담도 크지만 기업은행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일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더 단단해진다고 말한다. 박은숙 센터장도 주변의 기대를 잘 알고 있다.

“남동공단WM센터는 인천지역본부와 인천동부지역본부 영업점과의 협력을 통해 VVIP 고객과 우량법인의 자산관리를 특화된 서비스로 제공하며 든든한 동반자의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두 지역본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업들이 집중해 있는 남동국가산업단지와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부천테크노파크 등 인천과 부천에 이르는 지역에서 VVIP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량중소기업이 즐비한 산업단지의 영업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영업 앞에서는 하루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이 현실. 남동공단WM센터는 타 은행과의 경쟁을 통해 점유율을 높여야 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도 개척해야 한다. 다수의 금융기관이 선점한 가운데 후발주자로서의 어려움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항상 최상의 조건으로만 시작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IBK투자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먼저 55개에 달하는 영업점을 방문해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과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영업점 주소와 목표 등 맞춤 정보를 적어 놓은 영업점 방문일지도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개점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영업을 펼칠 생각입니다.”

**화랑에 온 것 같은 특별함**

남동공단WM센터에 들어서면 유난히 환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는 비단 조명 때문만은 아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반짝이고, 공기 또한 상쾌하다. 이뿐만 아니라 지점 곳곳에 놓인 꽃장식과 벽에 걸린 그림들은 마치 화랑에 온 듯한 느낌이었다. 언뜻 보면 모든 것이 갖춰진 WM센터로 보일지 모르지만 직원들이 회상하는 센터의 첫인상은 당황스러움 그 자체였다. 백종선 부센터장이 지난 한 달간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기존에 남동인더스파크지점이 사용하다가 이전한 탓에 먼지는 물론 정리되지 않은 짐이 쌓인 상태였어요. 센터 곳곳에 있는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벽지를 바꾸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보이는 곳까지 차츰 바뀌어나갔습니다. 3월 8일 개점일까지 한 달 안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기에 주말까지 나와서 개점을 준비했습니다.”

센터 곳곳에 직원들의 세심한 손길이 더해졌고, 의자 하나까지도 품격이 높아졌다. 고객이 센터를 넓고 쾌적한

‘오래 머무르고 싶고, 또 찾고 싶은 센터로 만들어 결국에는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최고의 WM센터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박은숙 센터장. 이러한 박 센터장과 함께 직원들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고의 가치를 만들기 위한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중이다.



휴식처로, 또 멋진 그림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화랑으로 느낄 수 있게 꾸민 것이다.

**두려움보다는 설렘**

함께 개점 준비를 하며 가족처럼 끈끈한 유대감으로 한데 뭉친 남동공단WM센터. 아니나 다를까, 박은숙 센터장을 비롯한 다섯 명은 남동공단WM센터의 최고 강점을 ‘사람’으로 꼽았다.

“개점준비위원 명단을 받고 놀랐어요. 정말 일 잘하는 사람들만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모두 어떤 일든 자기 일처럼 생각하며 본인의 역량을 맘껏 발휘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직원들 간의 단합은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제가 정말 인복(人福)이 많은 것 같아요.”

박은숙 센터장은 센터 직원들이 복덩이라고 말하며 좋은 분위기로 인해 남동공단WM센터가 전국에서 손꼽는 최고의 센터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경선 과장에게도 남동공단WM센터 직원들에 대해 문자 말없이 엄지를 올려 보였다.

“센터장님은 저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주세요. 센터장님의 다정함 덕분인지 센터장님을 생각하면 환한 미소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또 일을 추진할 때는 앞장서서 해주세요. 부드러움 속의 카리스마라고 하죠? 백종선 부센터장님도 정말 좋으세요. 믿고 따라가고 싶은 정도로 멋진 분이시죠. 이지현 대리님도 심민정 대리님도 긍정적이면서 적극적인 자세가 좋더라고요. 잘 해내야 한다는 두려움도 있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들 생각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큼니다.”

올해 입학 30년이 된 박은숙 센터장. 박 센터장은 센터에 방문한 고객이 ‘오래 머무르고 싶고, 또 찾고 싶은 센터로 만들어 결국에는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최고의 WM센터가 되겠다’며 큰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박 센터장과 함께 직원들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고의 가치를 만들기 위한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중이다. 당장은 그 끝을 확신하기 어렵다. 하지만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목표에 도달한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만큼 행복도 느끼게 될 것이다. 마지막 퍼즐 조각을 제자리에 끼워 넣었을 때처럼. WIN CLASS



줄리안 알프스의  
진주라고 불리는  
블레드 호수.  
둘레 6km의 작은  
호수이지만  
유럽을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로 꼽힌다.

##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사랑과 낙관 슬로베니아

어쩌면 슬로베니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인지도 모른다.  
알프스 산자락 아래 자리한  
인구 200만 명의 이 자그마한  
나라에는 친절한 사람들만 살고 있다.  
류블랴나, 피란, 마리보르...  
슬로베니아의 행복한 도시를  
여행했다.

Words: Photographs 최갑수(여행작가)

# Republic of Slovenia



슬로베니아는 우리에게 조금은 낯선 나라다.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에 숨은 듯 자리 잡고 있다. 면적은 한반도의 11분의 1. 대략 1,000만km<sup>2</sup>. 전라도 넓이와 비슷하다. 인구는 2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옛날에는 유고 연방에 속했는데 1991년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이 해체되면서 독립했다. 당시 6개 연방국가였던 유고슬라비아에서 슬로베니아는 가장 잘 사는 나라였다. 하지만 자신들이 쌓은 부를 다른 연방국가에 평등하게 배분해야 하는 공산주의 체제에 슬로베니아는 반기를 들었고 국민투표를 거쳐 독립을 결정했다. 지금도 국민소득이 2만5,000달러를 넘어, 동유럽과 발칸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이기도 하다. 나라가 워낙 작다 보니 동서를 횡단해봐야 고작 3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슬로베니아를 여행하다 보면 맨날 국경지대만 다니게 된다. 여기는 헝가리, 저기는 독일, 저기는 크로아티아와 국경이다.



02

### 달력에서 오려낸 동화 같은 풍경

슬로베니아를 일컫는 별명이 있다. '유럽의 미니어처'다. 이 작은 나라 안에 유럽의 모든 것이 다 모여 있기 때문이다. 블레드 호수에서 2시간만 북쪽으로 가면 피란 지역. 또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이탈리아와 면한 휴양도시인데 슬로베니아 사람들도 즐겨 찾는다.

알프스도 슬로베니아에서 만날 수 있다. 알프스 하면 스위스를 떠올리지만 사실 절반 이상이 오스트리아의 영토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도 지분을 갖고 있고 슬로베니아도 발을 걸치고 있다. 줄리안 알프스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와 국경을 맞댄 북서부 산악지대다. 트리글라브 등 2,000m 이상 고봉이 줄줄이 이어진다. 6월까지도 잔설이 있을 정도다.

블레드 호수는 '줄리안 알프스의 진주'라고 불리는 곳이다. 둘레 6km의 작은 호수이지만 전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힌다. 알프스의 만년설이 녹아 흘러들어 만들어졌다. 호수가 보여주는 풍경은 정말이지 그림 같다. 푸른 물비늘을 일으키며 햇살을 반사하는 호수와 그 호수 위에 떠 있는 작은 섬, 그리고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알프스산맥은 방금 달력에서 오려낸 듯한 풍경을 보여준다.

블레드 호수가 유명한 건 블레드 호수에 떠 있는 블레드섬 때문이다. 이 자그마한 섬은 슬로베니아에서 유일한 섬으로 전통 나룻배 '플레타나'를 타고 들어갈 수 있다. 블레드 호수엔 플레타나가 23척뿐이다. 18세기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 시대 때부터 그랬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블레드 호수가 시끄러워지는 걸 원치 않았고 딱 23척의 배만 노를 저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 숫자가 200년이 넘는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 뱃사공 일은 가업으로만 전해지고 남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한다.



Bled

01



Ljubljana

03

호숫가 절벽 위에는 블레드의 상징인 블레드 성이 자리한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자리한 모습이 동화 속이나 나올 직하다. 마법에 걸려 잠에 빠진 공주가 왕자의 키스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이 성은 약 800년 이상 남부 티롤의 주교가 앉던 의자가 있던 성당이였다. 이후에는 유고슬라비아 왕족의 여름 별장으로 쓰였다고 한다.

### 사랑스러운 도시 류블라나

슬로베니아를 찾는 여행자들은 수도 류블라나(Ljubljana)에서 여행을 시작한다. 발음하기가 약간 까다로운 이 도시는 한 나라의 수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다. 슬로베니아에

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하지만, 인구라고 해봐야 28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어느 날 가이드와 함께 류블라나 거리를 걷는데 가이드가 이렇게 말했다.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못 보던 사람들이 많지?"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아, 오늘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구나." 그렇다. 류블라나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인근 도시와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류블라나로 온 것이다. 그러니까 류블라나에서 태어나 30년째 살고 있는 그녀는 류블라나 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류블라나는 그만큼 작다. 류블라나의 가운데 자리한 프레세렌 광장은 오스트리아와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등지에서 오는 기차들이 정차하는



- 01 — 블레드 성에서 바라본 블레드 호수
- 02 — 블레드섬에 가기 위해서는 플레타나라는 작은 배를 타야 한다.
- 03 — 사진업서에 가장 많이 등장할 정도로 빼어난 류블라니차강과 트리플교
- 04 — 류블라니차강 양 옆으로 바로크양식과 아르누보 스타일의 건축물이 즐비하다.
- 05 — 프레세렌 광장에 있는 슬로베니아의 국민 시인 프레세렌의 동상
- 06 — 류블라나 성에서 굽어본 류블라나 시가지 전경
- 07 — 프레세렌 광장의 노천 카페



04

중앙역과 가깝다. 그래서인지 언제나 여행자와 현지인들로 붐빈다. 프레세렌이라는 이름은 슬로베니아의 국민 시인인 프레세렌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낭만주의의 선두 주자였으며, 강렬한 문장으로 유명했던 시인이다. 그가 죽은 날인 2월 8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이날에는 전국적으로 그의 시를 읽는 낭송회와 콘서트, 연극 공연 등이 열린다고 하니 그에 대한 슬로베니아 국민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프레세렌 광장에 있는 프레세렌 동상은 아득한 시선으로 어느 지점을 응시하고 있는데 그 시선이 닿는 지점에는 그가 평생 사랑했던 여인 율리아 프리미츠의 집이 있다. 평생 사랑했지만 신분의 차이로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들을 위해, 이루지 못한 사랑을 이루라는 의미로 이렇게 동상을 배치했다고 한다.

광장 옆으로는 류블라니차강이 흐른다. 강 양옆으로는 바로크 양식과 아르누보 스타일의 건축물이 즐비하다. 풍경은 평화롭고 여유롭기만 하다. 강 옆으로는 레스토랑과 카페, 서점 등이 늘어서 있다. 소란스럽지 않아 산책을 하듯 느린 걸음으로 돌아다니기 좋다. 강변을 따라 걷다 보면 트리플교(Triple Bridge)가 나온다. 슬로베니아의 대표적인 건축가 요제 플레치니크가 설계한 것으로 류블라나 업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트리플교에서 용의 다리로 가는 강가에 류블라나 중앙시장이 자리한다. 이른 아침에 찾아야 제대로 볼 수 있지만 오후에 가도 시장의 정취를 즐기기에 모자람이 없다. 활력과 생기로 시장은 떠들썩하다. 싱그러운 과일과 꽃, 채소와 치즈로 가득찬 시장은 슬로베니아의 또 다른 모습을 느끼게 해준다. 류블라나는 작은 도시라 지도 한 장 달랑 들고 다녀도, 길을



05

잃어도 조금만 걸으면 지나갔던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그러나 길 잃을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골목을 산책하는 다정해 보이는 부부와 수레 가득 꽃을 담아 팔고 있는 멋진 반백의 할아버지. 모퉁이 빵 가게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풍겨 나온다. 슬로베니아어로 류블라나는 '사랑스럽다'는 뜻이다. 김이듬 시인 역시 류블라나를 이렇게 말했다. "무심코 아무 카페나 바에 들어가도 전혀 실망스럽지 않았다. 이곳 강변 카페들의 세련된 인테리어와 음악 취향은 파리의 마레지구를 연상시키지만 그보다는 덜 소란스럽다."

류블라나 여행의 하이라이트이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명소는 류블라나 성이다. 9세기에 처음 세워졌다가 1511년 지진으로 파괴된 후 17세기 초에 재건됐다. 류블라나 성은 류블라나 시내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그동안 요새, 감옥, 병원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각종

전시회와 이벤트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류블라나 사람들이 결혼식장으로 가장 애용하는 곳이기도 하다. 성에 오르면 장난감 도시 같은 류블라나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김이듬 시인은 자신의 책 <디어 슬로베니아>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대한 자유롭게 게으르게,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삶이라는 여행을 누리려야겠다." 슬로베니아를 여행하다 보면 알게 된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낙관과 사랑이 생겨나게 하는 것은 열렬함과 치열함이 아니라, 한낮의 따스한 햇볕과 한 줌의 시원한 바람 그리고 맛있는 음식 아닐까 하는 사실을 말이다. WIN CLASS



06



07

✕ 여행정보

슬로베니아로 가는 직항편은 없다. 뮌헨, 터키 등을 거쳐 가야 한다. 블레드는 오스트리아 국경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와 크로아티아 등 인근 국가에서 도착하고 출발하는 국제선 전용 기차역이 따로 있다. 자세한 정보는 유레일 홈페이지(www.eurail.com/kr)를 참조하면 된다. 중부 유럽과 발칸반도를 잇는 주요 열차편도 류블라나를 거쳐 간다. 시차는 한국보다 7시간 늦다. 비자는 필요 없다. 통용되는 화폐는 유로화. 물가는 한국과 비슷하다. 슬로베니아에는 오렌지 와인 이 유명하다. 화이트 와인 품종으로 레드 와인 양조 방식을 접목해 만들기 때문에 레드 와인의 풍부함과 화이트 와인의 상쾌함을 모두 갖고 있는 게 특징이다. 첫 맛은 화이트, 끝 맛은 레드다. 슬로베니아 소시지로 크라니스카 크로바사가 있다. 다진 돼지고기에 마늘과 소금, 후추 등을 넣어 양념한다. 식감이 탄탄하고 간이 짭조름하다. 포티차라는 음식도 있다. 호두나 허브, 양귀비씨, 치즈, 꿀을 넣은 것으로 롤 케이크와 비슷하다. 결혼식이나 부활절, 성탄절과 같이 중요한 행사나 공휴일에 먹는 전통음식이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최고의 명작 오페라  
**모차르트 ‘마술피리’**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친근한 내용의 오페라이면서, 동시에 대단히 심오하고 깊이 있는 철학적 주제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유명하다. 일찍이 계몽사상에 눈을 뜬 모차르트는 대본가가 건네 준 단순한 형태의 교훈극을 보다 복잡하고 입체적인 구조로 다듬어 한없이 영롱하고 아름다운 음악 속에 이성과 계몽의 승리라는 뚜렷한 주제의식을 담아냈다.

Words 황지원 오페라평론가 Illustration 박진영  
 Photographs 국립오페라단



**모차르트의 최고 걸작 오페라**

오페라(Opera)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매혹적인 예술이라고 불린다. 아름다운 아리아와 선율들, 애절한 멜로드라마와 수준 높은 무대예술이 합쳐져 무한의 감동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처음 접하기에는 꽤나 문턱이 높은 장르인 것도 사실이다. 오케스트라는 머리 아픈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고, 성악가들은 대개 한 마디도 알아듣기 힘든 외국어로 노래한다. 티켓은 이 세상 어떤 공연보다도 비싸고, 공연시간은 중간 휴식을 합해 가볍게 3시간을 넘긴다. 남자는 나비넥타이에 턱시도, 여자는 늘씬한 원피스 드레스 정도는 입어줘야 오페라 극장에 출입이 가능할 것만 같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미션 임파서블’로 오해받는 오페라 관람. 그러나 여기에 당신의 부담감을 한 번에 날려 줄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모차르트의 최고 걸작 오페라 <마술피리>다.

**캐릭터 오페라**

<마술피리>는 두 남자의 모험 이야기다. 한 명은 타미노라 불리는 왕자이고, 또 한 명은 떠버리 새잡이로 일종의 수행원 역할을 하는 파파게노. 둘 앞에 나타난 밤의 여왕은 자기 딸 파미나 공주가 자라스트로라는 이름의 사악한 요승에게 납치당했다며 그를 구해 달라고 눈물로 간곡하게 호소한다. 간신히 자라스트로의 왕국에 도착한 두 남자는 밤의 여왕의 설명과는 정반대의 현실과 마주한다. 그곳의 빛의 세계, 즉 이성과 계몽의 정신을 신봉하는 곳으로 신실하고 묵묵하게 계율을 지키며 사는 수도승들의 나라였다. 자라스트로가 나타나 두 젊은이에게 시험을 제안한다. 침묵의 계율을 준수하고 고통을 감내하며 최후의 목표를 향해 쉼 없이 전진한다면 진정한 인격완성을 이뤄 각자 사랑하는 여인들과 당당하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왕자 타미노는 이 과정을 묵묵히 감내하지만, 새잡이



<마술피리>는 두 남자의 모험 이야기다. 한 명은 타미노라 불리는 왕자이고, 또 한 명은 떠버리 새잡이로 일종의 수행원 역할을 하는 파파게노. 둘 앞에 나타난 밤의 여왕은 자기 딸 파미나 공주가 자라스트로라는 이름의 사악한 요승에게 납치당했다며 그를 구해 달라고 눈물로 간곡하게 호소한다.



파파게노는 불평불만이 가득하다. 그들의 모험은 한 편의 판타지 영화와도 같아서 마법의 아이템인 피리와 마술종이 주어지고, 숲속에선 새와 들짐승들이 인도해준다.

결국 타미노는 목연수행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해 파미나 공주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그러나 파파게노는 출발부터 난관이다. 실새 없이 떠돌고 먹고 마시느라 수행시험은 완전히 뒷전이었던 것이다. 모차르트는 이 낙제생에게도 따뜻한 시선을 보내니, 별반 성실하지는 않지만 선하고 미워할 수 없는 그에게도 파파게나라는 이름의 단짝이 나타나 소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도록 허락한다. 자라스트로는 두 젊은이에게 이제 어둠은 영원히 사라지고 광명이 이 세상을 영원히 밝게 비추리라 선언하고, 밤의 여왕 등 어둠과 미몽의 세력이 완전히 몰락하는 가운데 오페라는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마술피리>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들 뚜렷한 개성을 지니고 있다. 일종의 '캐릭터 오페라'라 할 수 있는데, 왕자 타미노와 공주 파미나 커플은 단정하고 성실한 모범생의 전형이며, 파파게노는 사고몽처에 성실하지도 않지만 현재를 즐길 줄 아는 낙천적인 인간상이다. 자애로운 어머니에서 사악한 마녀로 돌변하는 밤의 여왕은 그로테스크하며, 사이비 교주로 소개되다가 나중에 참 진리를 이끄는 선각자로 밝혀지는 자

라스트로의 모습은 따뜻하고 자애로움이 넘쳐 흐른다. 모차르트의 음악은 재기발랄하고, 또한 엄숙하며 동시에 지극히 서정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캐릭터마다 확고한 특징을 부여해 파노라마처럼 다채로운 인물들을 하나로 강렬히 통일시켜 보여준다. 타미노 왕자가 부르는 독일 가곡풍의 서정적인 아리아, 파파게노의 장난기 넘치는 바리톤 노래들, 바로크 오페라를 연상시키는 현란한 기교의 밤의 여왕의 아리아들은 고금의 오페라 역사를 찬란히 빛내고 있는 최고의 명곡이기도 하다.

### 지성인도 사랑한 명작

오페라 <마술피리>는 이중적인 드라마다. 어떤 이는 이 오페라를 밝은 동화로 해석하여 가족용 오페라로 소개한다. 실제로 아기자기한 음악과 친숙한 스토리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오페라로 손색이 없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이 작품을 일종의 비밀 암호문식으로 읽어낸다. 모차르트가 회원이기도 했던 비밀결사 프리메이슨(Freemason)의 입회과정이 내재된 상징주의 오페라라는 해석이다. 모험과 도전의 동화 오페라 혹은 음모와 밀교의식으로 가득 찬 '모차르트 코드'식의 복잡한 상징 오페라. 어느 쪽이 이 작품의 진실한 모습인지는 그 누구도 단정하기 힘들다. 하나 확실한 것은 이 오페라가 21세기의 우



오페라 <마술피리>는 이중적인 드라마다. 모험과 도전의 동화 오페라 혹은 음모와 밀교의식으로 가득 찬 '모차르트 코드'식의 복잡한 상징 오페라. 어느 쪽이 이 작품의 진실한 모습인지는 그 누구도 단정하기 힘들다. 하나 확실한 것은 이 오페라가 21세기의 우리에게도 정말로 재밌고 깊은 감동을 주는 최고의 명작이라는 사실이다.



### [오페라의 이해] 최고의 아리아에 집중해보자!

오페라 속의 음악은 크게 보면 아리아(Aria)라고 불리는 주인공들의 독창과 그 외의 부분(합창 및 중창, 레치타티브)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리아는 연극으로 치자면 독백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악가가 무대 위에서 홀로 노래하는 장면이다. 루치아노 파바로티나 폴 포츠 등의 명창으로 유명한 '공주는 잠 못 이루고(Nessun Dorma)'도 오페라에 등장하는 유명 아리아다. <마술피리>에도 수많은 명곡 아리아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것은 2막에서 밤의 여왕이 노래하는 '지옥의 복수심이 내 마음에서 불타 오르고(Der Hölle rache kocht in meinem Herzen)'다. 자라스트로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찬 여왕이 딸 파미나에게 단검을 쥐어주며 복수를 결행하라고 압박지르는 내용이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극한의 기교를 총동원해 노래해야 하는 이 곡은 일찍이 조수미, 에디타 그루베로바 등 당대 최고의 소프라노들만이 소화해낼 수 있었던 기념비적 명곡이다. 실제 공연이 펼쳐질 오페라하우스에서도 특별히 주의를 집중해 이 곡을 들어보자.

리에게도 정말로 재밌고 깊은 감동을 주는 최고의 명작이라는 사실이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누구보다도 <마술피리>에 크게 감동한 나머지 후속 작품의 대본집필을 진지하게 구상했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스웨덴의 전설적인 거장 감독 잉마르 베리만이 영화로 된 <마술피리>를 발표했고, 최근에는 영국 최고의 지성파 배우이자 감독인 케네스 브래너가 더욱 현대적인 버전의 <마술피리> 영화로 다시 한 번 잔잔한 파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처럼 서구의 대표적인 지성들이 한결같이 이 작품에 열광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미몽의 어둠을 몰아내고 결국은 빛이 승리를 거둔다는 오페

라의 내용이 야만과 억압에서 벗어나 계몽과 이성의 세계로 나아가는 유럽 근대 시민사회의 계몽주의적 이상과 정확하게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결한 왕자와 공주 커플뿐만이 아니라 파파게노 같은 평범한 시민계급까지도 궁극에는 문명과 이성이라는 역사 발전의 성취를 함께 누린다는 넉넉한 세계관 또한 지식인과 철학자들의 열광을 불러일으켰다.

###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의 장수필

<마술피리>는 모차르트가 겨우 35세로 요절하기 두 달 전에 남긴, 그의 마지막 오페라다. 한때는 황실의 궁정작곡가로 위세를 떨쳤고, 로렌초 다 폰테 같은 최고의 대본작가들과 만나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코지 판 투테> 등 불후의 걸작을 쏟아내던 그였지만, 그즈음에는 생계를 위해 억지라도 많은 작품을 써야만 했다. 친구 사이였던 대본가 엠마누엘 슈카네더는 오스트리아와 중유럽 일대를 떠도는 이런저런 동화와 설화를 짜깁기하고, 계몽주의 비밀결사의 몇 가지 코드를 집어넣어 일종의 느슨한 민중계몽극 스토리를 모차르트에게 넘겼다. 줄거리는 나름 흥미로웠지만 앞뒤가 맞지 않았고, 대단히 통속적이기도 했다. 그러나 모차르트의 천재성은 모든 것을 보석으로 바꿔 놓았다. 아기자기하고 서정적인 선율과 엄숙한 합창, 현란한 기교의 아리아와 우아한 2중창 등이 종합선물세트처럼 모든 이를 매혹시켰다. <마술피리>는 그야말로 '미술 같은' 오페라다. WIN CLASS





## 보석의 자존심

보석은 그 자체만으로 아름답다. 하지만 보석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알고 싶다면 그 안에 숨은 역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 순간 한 단계 높은 세계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명품'이라 부른다.

Words 정영아

## Cartier, Paris since 1847



### 왕가의 보석, 까르띠에

까르띠에의 역사는 파리의 한 보석상에서 견습생으로 일하던 루이 프랑수아 까르띠에가 보석가게를 물려받은 1847년 시작되었다. 당시 프랑스는 나폴레옹 3세 시대로 귀족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었다. 뛰어난 세공 기술과 디자인 감각을 지닌 까르띠에는 귀족과 왕가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특히 나폴레옹 3세의 사촌인 마틸드 공주의 후원으로 급성장했고, 영국 국왕 에드워드 7세가 된 웨일스 왕자로부터 '왕의 보석상, 보석상의 왕'이라는 칭송을 받으며 그의 대관식에 사용될 27개의 화려한 티아라를 제작했다. 더불어 에드워드 7세는 까르띠에를 영국 왕실 공식 보석상으로 임명했다. 이후 스페인, 포르투갈, 러시아 등 전 세계 수많은 왕실로부터 의뢰를 받으며 명실공히 '왕실의 보석상'에 등극했다.

까르띠에를 얘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트리니티'다. 1924년 화이트골드와 핑크골드, 옐로골드로 만든 세 개의 고리로 엮은 트리니티 반지와 팔찌를 선보였는데, '트리니티' 탄생 배경에는 프랑스의 시인이자 영화감독인 장 콕토와의 인연이 숨어 있다. 루이 까르띠에가 친구인 장 콕토를 위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반지를 선물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트리니티'였다. 또 배우이자 모나코 왕비인 그레이스 켈리에게 한눈에 반한 모나코의 레이니 3세가 청혼선물로 준비한 반지가 바로 10.47캐럿의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로 만든 까르띠에였다. 이외에도 헤밍웨이의 만년필, 영국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 결혼식에 선보인 티아라 등 전 세계 명사들과 까르띠에의 인연은 그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많다.

## Tiffany&Co. New Work since 1837

### 결혼반지의 정석, 티파니

결혼반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보석은 다이아몬드 일 것이다. 까르띠에보다 10년 빠른 1837년 루이스 티파니가 미국 뉴욕에서 설립한 티파니는 '결혼반지의 정석'답게 '티파니 세팅'으로 유명하다.

1886년 개발해 티파니의 상징이 된 '티파니 세팅'은 밴드(링)와 다이아몬드를 분리한 디자인으로, 보석을 돋보이게 하는 '프롱 세팅(금속으로 스톤을 고정하는 세팅 기법)'이다. 즉 6개의 프롱이 다이아몬드를 밴드 위로 완전히 들어 올려 빛을 하단까지 통과시킨 기법으로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최대한 살린 디자인이다. '티파니 세팅'은 다이아몬드의 크기보다 광채를 강조하는 기법이다. 세계 최초이자 최고답게 그 공정은 눈부시도록 정교하다. 전 세계 1%인 최상급 다이아몬드 중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 다이아몬드만을 사용하는 티파니는 완벽한 다이아몬드를 위해 커팅에서부터 광채를 내는데 무려 21번의 공정을 거친다. 이렇게 정밀하게 세공된 다이아몬드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오히려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극대화한다. 그렇기에 개발된 지 13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다이아몬드 세공의 기준으로 삼는 까닭일 것이다. 더불어 다이아몬드 하면 티파니를 떠올리게 된다.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의 첫 장면은 유명하다. 검은 드레스에 검은 선글라스를 낀 오드리 헵번이 어느 보석 매장 쇼윈도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주제곡인 'Moon River'와 함께 흐르는 이 장면은 많은 여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익히 알 듯 오드리 헵번이 한참을 바라보던 매장이 바로 티파니다. 티파니가 결혼반지의 정석인 까닭이다.



### 완고한 원칙주의, 다미아니

다미아니는 까르띠에나 티파니 등 익히 알려진 명품 브랜드에 비해 역사가 짧다. 1924년 이탈리아 발렌시아에서 출발한 다미아니는 채 100년도 안 되는 역사로 세계적인 명품 보석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그 비결은 간단하다. 확고한 기술과 이탈리아 특유의 완고한 장인정신 그리고 새로운 감각과 독창성이다. 즉 보석 특유의 화려함은 유지하되 기교보다는 절제된 디자인을 통해 우아함을 잘 살렸기 때문이다. 다이아몬드 업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다이아몬드 인터내셔널 어워드(DIA)를 18회나 수상한 유일한 보석 브랜드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미아니의 저력은 충분히 설명된다. 특히 2000년 수상작인 '에덴' 반지는 업계뿐 아니라 세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따리 트 뱀을 보고 디자인한 반지 위에는 94캐럿 브릴리언트컷 다이아몬드 900이 올려져 있다. 800여 시간 수작업을 통해 완성된 것이기에 공개된 후 반응은 더욱 놀라웠다. 원칙주의에 기반한 탁월한 디자인뿐 아니라 다미아니는 기업윤리 역시 명품 브랜드답다. 다이아몬드 광산 거주자 지원 프로젝트 등 기업 차원에서 다양한 환경보호와 사회환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1년 여름부터는 '클린 워터 프로젝트'를 통해 비영리단체인 'Drop in the Bucket'를 지원하고, 2011년 일본 대지진을 위한 'Damiani for Japan' 활동을 비롯해 이탈리아, 네팔 등 지진 피해자를 위한 기부 마련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다미아니 고유의 디자인과 경영철학은 많은 월드스타를 다미아니 마니아로 만들었다. WIN CLASS

Damiani, Valencia since 1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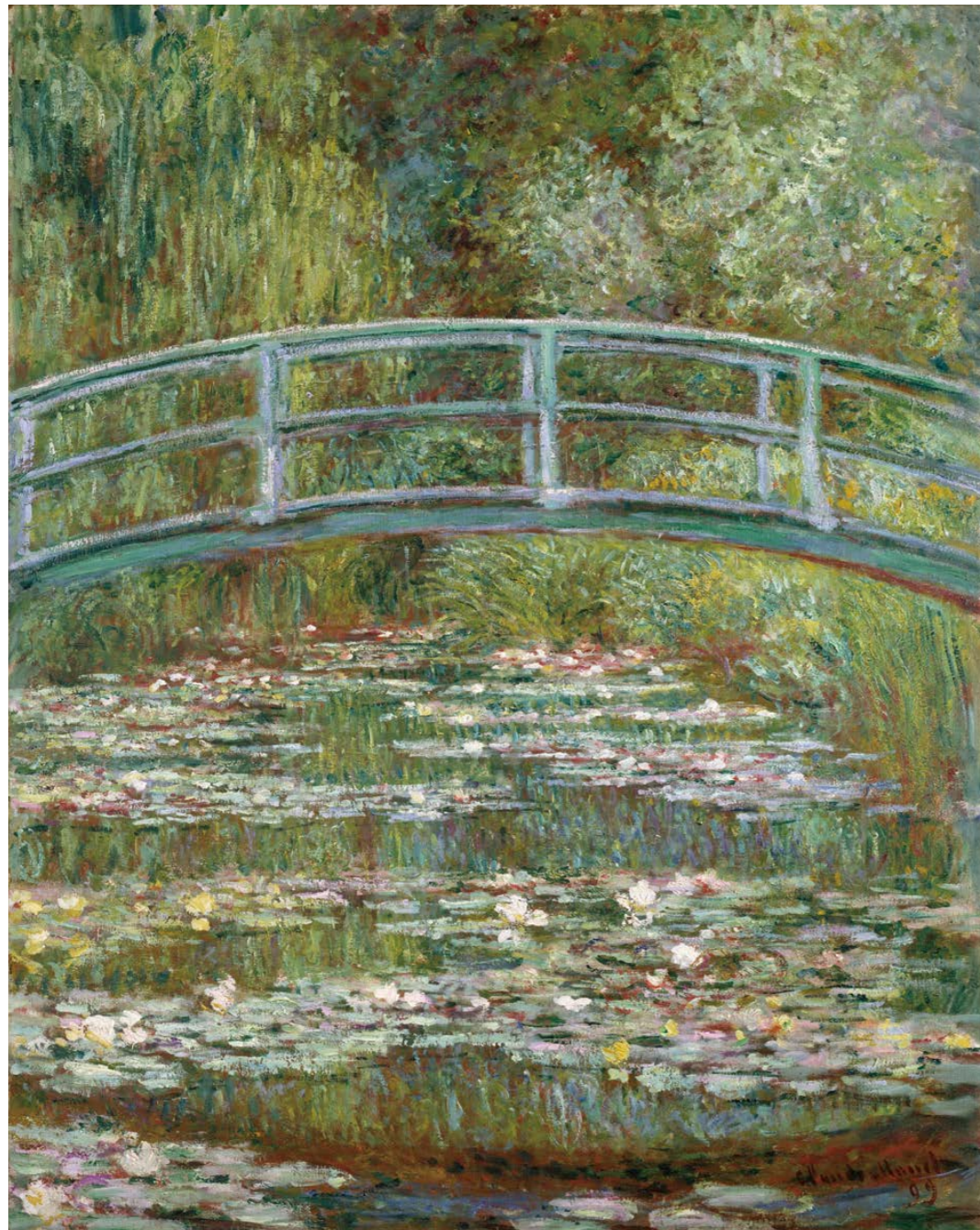




클로드 모네  
지베르니에서 탄생한 최고의 걸작

매년 3월이 되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지베르니를 찾아온다. 지베르니는 프랑스 파리에서 센 강을 따라 북서쪽으로 80km 떨어진 노르망디의 작은 시골 마을이다. 인구 500명 남짓 사는 이 작은 마을이 봄마다 북새통을 이루는 이유는 오직 하나. 겨우내 닫혔던 모네의 집과 정원이 활짝 문을 열기 때문이다.

Words 이은화 미술평론가



클로드 모네, 수련 연못 위의 다리(Claude Monet, Bridge over a Pond of Water Lilies, 1899)

인상주의의 창시자이자 완성자

클로드 모네는 1883년부터 생의 절반을 지베르니에 거주하며 수많은 걸작을 탄생시켰다. 이곳에 사는 내내 그는 그림 그리기만큼이나 정원 가꾸기에도 많은 열정을 쏟아부었다. 직접 디자인한 정원에 연못과 다리를 만들고, 이국적인 꽃과 나무를 심었다. 문득 궁금해진다. 모네는 왜 왕성하게 활동하던 40대에 미술의 중심지 파리가 아닌 이 작은 시골에 정착했던 걸까? 모네에게 정원은 어떤 의미였을까?

물을 유난히 좋아했던 모네는 평생 센 강을 따라 이사를 다녔다. 파리, 르아브르, 아르장퇴유 그리고 지베르니까지 그가 살았던 곳엔 늘 센 강이 흘렀다. 1840년 파리에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모네는 유년기를 센 강 하구의 항구 도시인 르아브르에서 보냈다. 인상주의라는 말의 근원이 된 1872년 작 <인상:해돋이>의 배경이 된 도시가 바로 여기서. '빛은 곧 색채다'라는 인상주의 원칙을 평생 고수했던 모네는 띄약별이나 거센 바람 속에서도 야외작업을 고집할 정도로 철저한 외광파였다. 시시각각 변하는 빛을 포착하기 위해 빠른 붓놀림으로 그리다 보니 그의 그림은 늘 미완성으로 보이기 일쑤였다. 당시 사람들이 이런 덜 그린 것 같은 그림을 좋아할 리 없었다. 그럼에도 모네는 빛을 연구하기 위해 매일 10시간 이상을 야외에서 작업했다.

모네는 43세에 지베르니로 이사 와서 43년을 살았다. 1890년경 모네는 작가로서의 명성도 얻기 시작했고, 그동안 임차해 살던 집과 땅을 살 만큼 경제적 여유도 생겼다. 정원사 여럿을 고용할 형편이 되자 본격적으로 연못과 다리가 있는 정원을 만들었다. 정원 가꾸기는 모네에게 그림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다. 화가가 아니라 식물학자로 보일 정도로 원예잡지를 구독하고 멀리서 이국적인 식물을 주문하는 등 원예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정원을 가꾸는 데 열성이었다. 처음엔 시각적 즐거움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정원은 점점 그의 작품과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갔다.

"어느 날 연못이 얼마나 매혹적인지, 나는 계시를 보았다. 팔레트를 집어 들었고, 이후 다른 주제는 거의 그릴 수가 없었다." 모네가 말년에 과거를 회상하며 친구에게 한 말이다.

즐거움의 대상이었던 정원

<수련 연못 위의 다리>는 모네가 그린 최초의 연못 그림 중 하나다. 풍경화치곤 특이하게 세로로 긴 그림



모네가 직접 가꾸었던 지베르니 정원의 연못

이다. 화면의 아래 절반을 차지하는 연못엔 수련이 가득 피었고, 위쪽 절반에는 수양버들과 물푸레나무 등 수풀이 울창하다. 연못과 주변에는 아이리스, 스파이리어, 대나무 등 이국적인 식물들도 보인다. 화면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심플한 아치형의 나무다리는 일본 우끼오에 관화에서 본 일본식 다리를 모방해 만든 것이다. 모네는 빛을 받은 꽃과 수풀, 수면의 미묘한 흔들림까지 섬세하게 포착해 풍부한 색채로 화면을 가득 채웠다. 하늘이 전혀 보이지 않도록 수풀의 밀도를 과장되게 표현했고, 붓 터치는 매우 두텁고 과감했다. 모네가 59세에 그린 이 그림은 말년의 대작인 수련 연작들을 탄생시키는 다리 역할을 했다. 초기작들은 이 그림처럼 초록 톤이 강하고 세로나 반듯한 정사각형 형태였지만 이후에 그려진 수련 그림들은 더 깊고 풍부한 색채를 띠며, 가로 길이는 점점 더 길어졌다. 마치 그의 인생을 종합하고 압축해 놓은 듯 그림들도 화가의 모습을 닮아갔다. 모네는 생애 마지막 20년을 수련 연작에 매달렸고 250점 이상을 완성시켰다.

훗날 그는 '연못 그림은 평화로운 목상'이며, '자연과 더 밀접하게 소통하는 것 외에는 아무 소원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원은 내 생애 최고의 걸작이다'라는 말도 남겼다. 그랬다. 모네에게 정원은 시각적 즐거움의 대상이자 목상의 장소였고, 작품을 위한 최고의 모델이자 작품 그 자체였던 것이다. 모네가 살던 지베르니의 집과 정원은 둘째 아들이 프랑스 예술학교에 기증한 후 복원과 수리를 거쳐 1980년부터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다만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문을 닫는다. 모네를 사랑하는 세계 도처의 미술 순례객들이 해마다 꽃피는 3월을 기다리는 이유다. WIN CLASS

Claude Monet



# IBK기업은행이 추천하는 이달의 추천 펀드

(2019년 1월 기준)

<p><b>공격투자형 1등급</b></p> <p>미래에셋스마트헤지펀드셀렉션 IBK골드마이닝</p>	<p><b>적극투자형 3등급</b></p> <p>IBK KOSPI200인덱스 KB중소형주포커스 유리글로벌거래소</p>	<p><b>위험중립형 4등급</b></p> <p>삼성배당주장기 KTB스마트시스템 트레이딩 트러스톤코리아외화채권(H)</p>
<p><b>안정추구형 5등급</b></p> <p>동양단기채권 한국투자e단기채 칸서스튼단기채</p>	<p><b>안정추구형 5등급</b></p> <p>마이다스단기국채공모주 교보약사Tomorrow장기우량 NH-Amundi Allset 모아모아15</p>	<p><b>안정형 6등급</b></p> <p>유진 챔피언 단기채</p>

■ 투자성향 ■ 펀드위험등급

**위험중립형** **트러스톤 코리아 외화채권 증권자투자신탁H(채권)** **4등급**

## 이 펀드가 궁금합니다!

한국의 공사, 은행 및 기업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글로벌 신용등급 BBB- 이상), 한국 우량기업의 외화표시 후순위채, 고금리 통화채권에 분산투자하는 펀드입니다.

## 펀드 수익률(2019. 1. 2. A클래스 기준)



## 펀드 투자 포인트

<p><b>우량한 한국 기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공사, 은행, 기업들이 발행한 투자등급 외화표시채권에 투자</li> <li>- 글로벌 대표 회사채와 견주어 우량한 신용도</li> </ul>	<p><b>상대적 높은 금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중기 채권금리는 연준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여 높아진 수준</li> <li>- 한국 회사채 금리보다 높은 미국 채권 또는 달러 표시 한국 채권 금리(약 1%p)</li> </ul>	<p><b>환율 상승 시 유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노출형(Unhedged, UH)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추가 수익</li> <li>- 호주 달러 등 상대적 고금리 통화표시채권에 투자하여 추가 수익</li> </ul>	<p><b>직접 투자보다 유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채권을 직접 투자할 때보다 유리한 금리</li> <li>- 외화 환전 비용 감안 시 효율적 외화자금관리</li> </ul>
---	--	---	---

## 펀드 운용 전략

기본 전략 80%	달러 표시 우량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달러 펀드멘털, 한국 정부 및 공기업 등의 해외 신용 조달 여건 차이로 높은 금리 제공 (글로벌 신용등급 BBB- 이상)</li> <li>- (환노출형) 미국의 상대적 높은 성장률과 고금리로 원달러 환율 상승 시 추가수익</li> <li>- (환헤지형) 원달러 선물환 계약을 통해 90%±10% 환헤지 시행</li> </ul>
초과수익 전략 20%	외화 표시 후순위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한국 우량기업의 외화표시 후순위채 투자로 추가수익</li> <li>- 펀드멘털에 근거하여 발행사를 선별하여 신용유니버스 선정 후, 상대가치에 근거하여 종목 투자</li> </ul>
	고금리 통화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은행, 기업 등이 발행한 달러 외 고금리 통화 채권에 분산투자하여 환헤지 효과와 더불어 추가 수익</li> </ul>

## 쉽고 간편한 펀드투자 똑똑한 인공지능 i-ONE로보와 함께하세요!



# i-ONE ROBO

구분	펀드 포트폴리오	연금 포트폴리오
대상고객	개인 및 기업	개인 (연금저축가입대상자)
가입방법	영업점, 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은 개인고객만 가입가능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최저금액 10만원)	
포트폴리오별 펀드개수	3개 ~ 5개 (MMF 미포함)	5개 (MMF 필수포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래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25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상품에 관한 상세내용은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계약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의필 제 18-03691호(2018.09.05~2019.08.21)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8-4075호(2018.08.31) | 계시기한: 2019.08.21 | 출금번호: FP064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은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및 수수료, 환매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과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080-800-0109, IBK기업은행은 금융·항운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ibkethics@ibk.co.kr))

※로보어드바이저가 제공한 포트폴리오 투자 의사결정은 고객 스스로 판단하셔야 하며, 은행은 고객의 투지에 따른 수익을 보장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심의결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적합한 투자 또는 투자성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당신을 위한  
IBK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 WIN CLASS

최고의 품격, 최상의 자산관리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WIN CLASS

IBK기업은행  
WIN CLASS의  
차별화된 서비스

- Consulting 최고의 자산관리 분야별 전문가가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드립니다.
- Portfolio 고객님의 자산증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전략을 제시합니다.
- Premium 고객님의 품격 있는 라이프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와 경험을 선사합니다.

· WIN CLASS는 IBK기업은행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Private Banking 브랜드입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8-4081호(2018.08.31) 게시기간 : 2019.08.30 발급번호 : EP209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익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 ☎1566-2566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규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공·형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